

의미해석에 따른 총칭표현의 영한번역방법

곽 은 주
(세종대)

1. 서론

의도한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언어마다 선택하는 표현 전략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의미표현이 명사구에 집중되거나 동사구에 집중될 수도 있으며, 명사구를 중심으로 표현될지라도 한정성(definiteness), 복수성(plurality), 명사의 의미자질(semantic feature) 등의 다양한 요소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전략이 선택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전략의 차별성이 번역에 있어서는 비등가(non-equivalence)의 문제, 즉 원천언어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혹은 형태와 동일하지 않은 목표언어로의 번역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천언어와 목표언어간의 언어적 특성이 고려된 적절한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영어와 한국어간의 번역에 있어서 상이한 문법적 특성으로 인해 비등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언어적 영역 중 하나는 총칭(generic)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이다. 총칭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은 구체적인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일회성의

사건이나 상태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개체를 아우르는 종(kind)에 대한 기술이나 개체들의 일반적인 속성을 기술한다. 일회성 사건/상태를 기술하는 문장과 종 혹은 일반적 속성을 기술하는 총칭문장의 의미는 그 차이가 확연히 구분되는 만큼 번역 상에서 약간의 실수일지라도 오역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많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영어와 한국어는 총칭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선택하는 전략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와 한국어간의 총칭표현의 효과적인 번역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각각의 언어에서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문법상의 특성을 검토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번역시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한다.

2. 영어와 한국어의 총칭표현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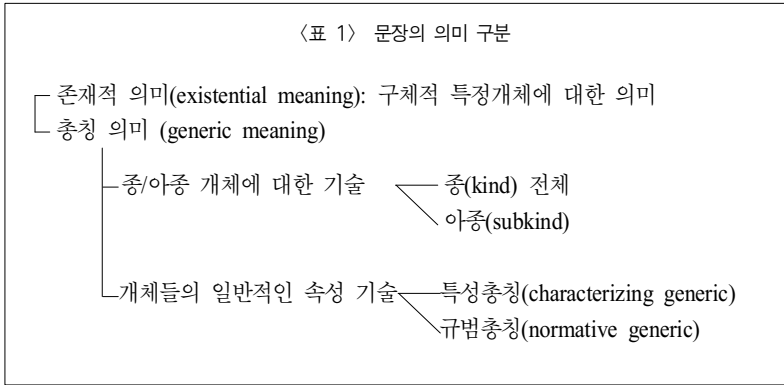
2.1. 영어의 총칭표현 구분

문장의 의미를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효과적으로 선택되는 분류기준 중의 하나는 문장이 구체적인 특정개체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는가 아니면 종(kind)이나 개체들의 일반적인 속성을 전달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1a)의 문장은 이 계곡에서 발견된 구체적인 공룡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는 반면 (1b)의 문장은 공룡이라는 종 전체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다.

- (1) a. Dinosaurs were discovered in this valley.
b. Dinosaurs were extinct.

(1a)는 구체적인 특정 공룡과 관련된 일회성의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발견의 의미를 전달하는 반면 (1b)는 모든 공룡을 아우르는 종에 대한 일반적인 상태, 즉 멸종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전자는 존재적 의미(existential meaning)를 전달한다고 분류되며, 후자는 총칭의미(generic meaning)를 전달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이 의미 구분에서 결정적인 요소 중의 하나는 서술어구의 의미이다. (Carlson

1977, Krifka et al 1995) ‘be discovered in this valley’는 일회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서술어구인 반면, ‘be extinct’는 종 개체 (kind individual)에 대해 기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명사구를 주어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dinosaurs’의 의미는 (1a)와 (1b)에서 서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장의 의미에 따른 구분은 <표 1>에서처럼 다양하게 나타나며, 총칭의 의미를 가지는 여러 문장의 구분에 대해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다.



종 개체를 포함하는 문장은 서술어구의 의미 외에 명사구의 표현방식에도 영향을 받는다. 종 개체에 대한 기술을 할 수 있는 동일한 서술어구가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2a), (2b), (2c)는 그 문법성에 있어서 차별성을 보인다. (Quirk et al 1985)

- (2) a. Lions are becoming almost extinct.
- b. The lion is becoming almost extinct.
- c. *A lion is becoming almost extinct.

무관사 복수명사(bare plural)인 ‘lions’나 정관사를 수반한 단수명사인 ‘the lion’은 종 개체를 지시하기 위해 쓰일 수 있지만, 부정관사를 수반한 단수명사인 ‘a lion’은 종 개체를 지시하기 위해 쓰일 수가 없기 때문에 (2c)만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¹⁾ 그러나 부정관사를 수반한 단수명사일지라도 종 개체 전체를 지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에 속하는 아종(subkind)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2) d. A (certain) lion (namely the Berber lion) is becoming almost extinct.

(2d)에서처럼 ‘a lion’이 사자 전체의 종이 아니라 이 종의 아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종 개체 중의 하나, 예를 들어 베르베르 사자만 지시하는 경우에는 종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아종 개체를 지시하는 경우 문장이 분류학적 의미(taxonomic reading)를 가진다고 한다. 문장의 의미해석을 위해서는 존재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쓰이는 일반적인 개체와 함께 종 전체를 지시하기 위한 종 개체도 가정된다. 하나의 종으로 분류될 수 있는 복수의 아종들도 종 개체를 지시적 의미의 기반으로 삼게 된다. 일반적인 개체와 마찬가지로 셀 수 있는 종 개체의 개체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종 전체를 지시하는 (2b)의 ‘the lion’이나 여러 아종 중 하나를 지시하는 (2c)의 ‘a lion’은 의미적 특성이 통사적 형태에 잘 반영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종 전체를 지시하기 위해서 영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2a)의 무관사 복수명사 ‘lions’는 그 통사적 형태에서 의도한 지시적 의미를 유추하기 힘든 경우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관사를 수반하는 한정적(definite) 복수명사는 종 개체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쓰일 수 없지만 복수의 아종 개체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총칭문장에 쓰일 수 있다.²⁾

1) 무관사 복수명사와 정관사를 수반한 단수명사가 동일하게 종 개체를 지시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퀴크 외 (Quirk et al 1985)에 의하면 이 두 표현 방식 간에는 의미 차이가 있다. 무관사 복수명사는 종 개체의 의미 전달을 위해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반면 정관사 단수명사는 격식성이 높은 텍스트에 그 사용이 국한되므로 쓰이는 빈도수가 훨씬 낮다. 즉 격식성의 정도에 따라 영어에서는 총칭 명사구의 표현 방식이 다르게 선택된다.

2) 크리프카 외 (Krifka et al 1985)는 아종 총칭표현은 수사, 지시사, 양화사와도 함께 쓰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 (i) a. Two whales, namely the blue whale and the fin whale, were put under protection.
 b. This whale, namely the blue whale, is nearly extinct.
 c. Every whale is protected by law.

- (3) a. *The dinosaurs became extinct.
- b. The dinosaurs became extinct at various points in time.

(3a)의 서술어구의 의미적 특성상 주어인 ‘the dinosaurs’는 종 개체를 지시하여야 하지만 문장의 비문법성에서 알 수 있듯이 한정적 복수명사인 ‘the dinosaurs’는 종 총칭표현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3b)의 서술어구에 쓰인 ‘at various points in time’은 멸종이라는 사건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일어났음을 전달하며 복수의 사건의 의미를 가지는 서술어구는 주어의 총칭표현의 지시적 의미가 하나의 종에 속한 여러 아종이어야 함을 보여준다. (3b)에서 보이는 문장의 자연스러움은 아종의 의미로는 한정적 복수명사가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총칭문장은 종이나 아종 개체에 대한 기술 이외에도 종에 속한 개체들의 일반적인 속성을 전달하기 위해서도 쓰인다.

- (4) Dinosaurs were huge.

(4)의 문장은 몇몇 공룡이 몸집이 컸다는 의미를 전달하기보다는 공룡의 종에 속하는 개체들이 대체로 컸음을 전달하고 있다. 개체들의 일반적인 속성을 기술하는 이와 같은 총칭문장은 ‘특성총칭(characterizing generic) 문장’으로 분류된다.³⁾ 특성총칭 문장을 확인하는 효과적인 방식은 일반적인 속성을 지시하는 부사에 해당하는 ‘enerally’ ‘sually’ ‘ypically’등을 삽입하여 그 문장의 의미가

(ia)에는 수사 ‘two’가 아종의 의미를 전달하는 ‘whales’와 함께 쓰였으며, (1b)는 지시사 ‘this’가 쓰였고, (1c)는 양화사 ‘every’가 아종 표현 ‘whale’과 함께 쓰였다. 아종 총칭표현이 이렇게 다양한 한정사와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은 아종 개체가 일반개체와 마찬가지로 가산성을 가지는 개체임을 보여준다.

3) 특성총칭 문장의 주요한 특성 중의 하나는 지시대상의 예외성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Carlson 1977, 1989, Krifka et al 1995) (4)의 문장은 대부분의 공룡들이 컸음을 전달하는 것이지 모든 공룡이 예외 없이 거대하였음을 주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칭(universal) 의미를 가지는 양화사인 ‘all’을 삽입하였을 경우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4)는 몸집이 거대하지 않은 일부 공룡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몸집이 공룡들의 일반적인 속성이라면 문장이 참이 되지만, 전칭 양화사를 포함한 문장인 ‘All dinosaurs were huge’는 몸집이 작은 공룡이 단 하나라도 존재하면 거짓이 된다.

크게 변화하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5) Dinosaurs were generally/usually/typically huge.

(4)의 문장에 이러한 부사들을 삽입하여 (5)에서처럼 문장을 만들었을 때 (4)와 (5)의 문장 사이에 큰 의미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4)의 문장이 개체들의 일반적인 속성을 전달하는 특성총칭 문장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쿼크 외 (1985)에 의하면 영어에서 특성총칭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명사구의 총칭표현은 (4)에서와 같은 무관사 복수명사의 형태 이외에도 한정적·비한정적 단수명사가 다 쓰일 수 있다.

- (6) a. A dinosaur was huge.
- b. The dinosaur was huge.
- c. *The dinosaurs were huge.

(6)의 문장들의 문법성의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어에서는 한정적 복수명사 ‘the dinosaurs’만이 특성총칭 표현으로 적합하지가 않다. 특성총칭 문장의 의미가 종에 속하는 대다수의 개체들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임을 감안할 때 무관사 복수명사와 한정적·비한정적 단수명사가 다 특성총칭 표현으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은 의미적 지시성과 통사적 형태가 일치하지 않는 또 다른 경우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⁴⁾

개체들의 속성을 전달하는 총칭문장은 특성총칭 이외에도 규범총칭 (normative generic)을 포함한다. (Lawler 1973, Burton-Roberts 1977) 코헨

4) 특성총칭 문장이 대다수의 개체들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이지만 이 의미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는 이론에 따라 다른 입장을 취한다. 칼슨(Carlson 1977, 1989)와 키얼키어(Chierchia 1998a, 1998b)는 단수의 종 개체의 의미를 특성총칭 표현에 부여하고 여기서 다수의 특성총칭 의미를 유도하자는 입장인 반면 윌킨슨(Wilkinson 1991), 디징(Diesing 1992), 거스트너 & 크리프카 (Gerstner & Krifka 1993), 크라처 (Kratzer 1995) 등은 처음부터 종 개체와 특성총칭의 중의적 의미를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영어의 특성총칭 문장에서 단수와 복수의 명사구가 다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이론을 따르더라도 의미적 지시성과 통사적 형태의 불일치는 불가피하게 일어난다.

(Cohen 2001)은 영어는 명사구의 표현 방식에 따라 다른 총칭의미를 전달한다고 한다.

- (7) a. Gentlemen open doors for ladies.
- b. A gentleman opens doors for ladies.

(7a)와 (7b)는 모두 신사라는 종에 속하는 개체들의 일반적인 속성으로서 숙녀를 위해 문을 열어 주는 것을 기술하지만 두 문장의 주장의 근거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7a)는 다수의 신사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결과로 도출되는 일반적인 행태로서의 특성총칭의 의미를 전달한다. 반면 (7b)는 신사라고 분류할 수 있는 전형적인 개체로 인정될만한 사람을 관찰하고 그 결과 도출되는 특성을 기술한다.⁵⁾ 즉 (7a)가 ‘신사들은 대체로 숙녀를 위해 문을 열어준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반면 (7b)는 ‘신사라면 마땅히 숙녀를 위해 문을 열어 주어야 한다’는 규범적 의미에 해당하는 해석을 가진다. 퀴크 외 (1985)는 한정사 ‘any’를 명사구에 삽입하여 보면 규범총칭 문장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any’를 삽입한 결과 큰 의미상의 차이가 나타나면 그 문장은 규범총칭이 아니며 의미상의 차이가 별로 없으면 규범총칭 문장이다. (7b)에 ‘any’를 삽입하여 만든 문장인 ‘Any gentleman opens doors for ladies’는 (7b)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며, 이는 (7b)의 문장이 규범총칭 문장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규범총칭 문장은 그 의미적 특성상 사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법조문이나 학문적 보고서 등과 같이 격식성이 높은 텍스트에 국한되어 사용된다.

2.2. 한국어의 총칭표현 구분

영어에서는 종과 아종, 특성총칭과 규범총칭 등의 다양한 총칭 의미를 전달

5) 특성총칭 문장과 규범총칭 문장의 의미상의 차이는 이론에 따라 달리 설명되지만 코헨(2001), 곽은주(Kwak 2009) 등에 의하면 이 두 종류의 문장은 해석의 배경이 되는 세계가 다른 것으로 가정된다. 특성총칭 문장이 일반적인 개체의 속성을 지시하는 것이므로 실제세계(real world)와 가능세계(possible world)를 중심으로 해석이 된다면 규범총칭 문장은 각 지시대상 중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개체들로 구성된 이상세계(ideal world)를 배경으로 해석이 된다고 가정된다.

하기 위해 명사구의 복수성과 한정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영어와 달리 한정성을 표현하기 위한 문법적 장치가 없는 한국어에서는 명사구의 한정성은 총칭 문장을 전달하는데 활용할 수가 없으므로 복수성만이 총칭 구분에 쓰이고 있다. 명사구의 표현양식이 제한적인 한국어에서 표현의 제한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를 적절히 활용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총칭표현은 문장에서의 성분에 관계없이 화제를 표시하는 조사 ‘-은/는’을 수반한다. (Kwak 2009)

- (8) a.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을 좋아한다.
- b.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을 좋아한다.

(8a)와 (8b)는 주어인 명사구의 조사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문장이다. 주격조사 ‘-이’가 쓰인 (8a)는 구체적인 대상으로서의 몇몇 아이들에 대한 기술을 하는 존재적 의미를 가지지만, (8b)는 아이들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기술하는 특성 총칭의 의미를 가진다. 2.1에서 기술한 특성총칭 확인 방법에 따라 일반적 속성의 의미를 가진 부사인 ‘일반적으로’, ‘대체로’ 등을 문장에 삽입하였을 때 (8a)는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지만 (8b)는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게임을 좋아한다’와 같은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영어에서와 같이 한국어에서도 명사구는 단수·복수로 구분하여 표현할 수 있으므로 복수성은 총칭 의미 전달에 적절히 활용된다. 종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영어에서는 단수와 복수 명사구가 다 활용되지만, 한정성을 표현하기 위한 관사가 문법적으로 없는 한국어에서는 단수 명사구만이 종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Kwak 2009)

- (9) a. 인간은 유인원에서 진화하였다.
- b. *인간들은 유인원에서 진화하였다.
- (10) a. 감자는 남미에서 처음 재배되었다.
- b. *감자들은 남미에서 처음 재배되었다.

(9)와 (10)의 서술어구인 ‘유인원에서 진화하였다’와 ‘남미에서 처음 재배되었다’는 그 의미의 특성상 종 개체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때 복수명사구를 포

합한 (9b)와 (10b)는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반면 단수명사구를 수반한 (9a)와 (10a)는 자연스러운 총칭문장의 의미를 전달한다. 이 문장들의 문법성의 차이는 한국어에서는 복수명사구가 하나의 종을 기술하는 의미로는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명사의 어휘적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성 있게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종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단수명사구가 쓰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아종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복수명사구가 더 선호된다.

- (11) a. *(품종이 다른) 사과는 원산지가 서로 다르다.
- b. (품종이 다른) 사과들은 원산지가 서로 다르다.
- (12) a. 부사사과는 다른 사과들보다 달다.
- b. *부사사과들은 다른 사과들보다 달다.

(11)의 문장들은 (9)와 (10)의 문장들과 자연스러움에 있어서 반대의 판정을 보이고 있다. 단수명사구가 쓰인 (11a)가 매우 어색하게 느껴지는 반면 복수명사구가 포함된 (11b)는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서술어구인 ‘서로 다르다’는 유사성을 비교하기 위해 복수의 대상에 적용될 수밖에 없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단수인 종 개체를 지시하는 의미와는 호응할 수 없으며 복수의 아종 개체를 지시하는 명사구와 호응할 수 있다. (11b)의 자연스러움은 한국어에서 복수의 아종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복수명사구가 선호됨을 보여준다. 그러나 부사사과와 같이 단수의 아종을 지시할 경우는 (12)에서처럼 단수명사구가 선호된다. (11)과 (12)의 대조적인 차이는 영어와 달리 한국에서는 하나의 종인가 복수의 아종인가에 따라 단수명사구와 복수명사구로 선택이 달라지며, 이는 통사적 형태가 의미적 지시성, 즉 복수성에 따라 결정됨을 보여준다.

한국어에서는 개체들의 일반적인 속성을 기술하는 특성총칭 문장에서 총칭표현의 의미자질에 따라 선호되는 명사구의 표현양식이 달라진다. 사람을 지시하여 [+human]의 의미자질을 가지는 명사는 특성총칭 문장에서 복수명사구가 선호된다. (Nemoto 2005, Kwak 2009)

- (13) a.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을 좋아한다.
- b. 아이는 컴퓨터 게임을 좋아한다.

(13a)는 아이라는 종에 속하는 대다수 개체들의 일반적인 속성으로 컴퓨터 게임을 좋아한다는 것을 기술하는 특성총칭 문장으로 이해되지만 (13b)는 구체적인 한 명의 아이에 대한 기술로 해석되는 존재적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의미적 차이는 일반적 속성을 나타내는 부사 ‘일반적으로’를 삽입하였을 때 그 차이가 분명해진다.

- (14) a.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게임을 좋아한다.
b. *아이는 일반적으로 컴퓨터 게임을 좋아한다.

(13a)의 특성총칭 문장에 ‘일반적으로’가 삽입된 (14a)는 여전히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존재적 의미를 가지는 (13b)에 삽입하였을 때는 (14b)에서처럼 어색한 문장이 된다. 총칭표현이 사람이 아닌 대상을 지시하여 [-human]의 의미자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선호되는 명사구의 형식이 달라진다.

- (15) a. *감자들은 껍질이 잘 벗겨진다.
b. 감자는 껍질이 잘 벗겨진다.
c. 감자는 일반적으로 껍질이 잘 벗겨진다.

(15a)와 (15b)는 감자라는 종에 속하는 개체들의 일반적인 속성으로 껍질이 잘 벗겨지는 것을 기술하는 특성총칭 문장들이다. 이 두 문장의 문법성의 차이에서 보는 것처럼 특성총칭 문장에 [-human]의 의미자질을 가지는 ‘감자’가 쓰일 경우 복수명사구보다는 단수명사구가 자연스럽게 쓰인다. (15b)의 특성총칭 문장의 의미는 부사구가 삽입된 (15c)의 자연스러움으로 확인된다.

하나의 종에 속하는 개체 중 모범적인 개체를 관찰하여 그 개체들 전체에 규범적으로 적용하는 총칭 의미는 규범총칭 문장으로 분류되며, 법조문이 규범총칭이 쓰이는 대표적인 텍스트 유형이다. 곽은주 (Kwak 2009)에 의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나타나는 규범총칭 문장의 총칭표현은 모두 (16a)에서처럼 단수명사구의 형태로 쓰인다.⁶⁾

6) 곽은주 (2009)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 조문에는 ‘국민’, ‘공무원’, ‘근로자’, ‘재판관’ 등과 같은 21 종류의 사람명사가 쓰인 규범총칭 문장이 총 70회 나타나지만 이 문장

- (16) a.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 b. #국회의원은 일반적으로 청렴의 의무가 있다.
- c. 국회의원이려면 누구나 청렴의 의무가 있다.

주석 3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특성총칭 문장은 예외성을 허용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16a)는 일부 개체에 예외가 허용되는 특성총칭의 의미로는 쓰이지 않으며 국회의원이란 속성을 가지는 개체에게는 예외 없이 적용되는 규범총칭 문장으로 해석된다. 이는 특성총칭 확인 방법인 일반적 속성의 부사 삽입이 어색한 (16b)와 규범총칭을 확인하기 위해 영어에서 ‘any’를 삽입한 것과 같은 문장인 (16c)의 자연스러움에서 확인된다.

2.3. 영어와 한국어의 총칭표현 비교

총칭표현으로 분류되는 명사구가 그 쓰임에 따라 여러 범주로 나뉘고, 세부 범주에 따라 선호되거나 허용되는 명사구의 통사적 형태가 영어와 한국어가 서로 상이하다. 지시대상의 성격에 따라 총칭표현을 나누어 보면 종과 아종을 지시하는 총칭표현이 일반개체가 아니라 종 개체를 지시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또한 특성총칭과 규범총칭을 지시하는 명사구가 지시대상이 속한 세계가 실제세계인가 아니면 이상세계인가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일반개체를 지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지시대상의 유사성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세부분류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유사성이 통사적 형태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2)의 예문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전체 종을 지시하는 영어 총칭표현은 ‘lions’와 ‘the lion’이 가능하고 ‘a lion’과 ‘the lions’는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한국어에서는 (10)의 예문에서와 같이 단수명사구인 ‘감자’는 가능하지만 복수명사구 ‘감자들’은 매우 어색하다. 즉 하나의 종 개체를 지시하는 총칭표현의 의미적 단수성이 한국어에서는 통사적으로 반영이 되지만 영어에서는 단수와 복수명사구가 모두 허용된다는 점에서 불일치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비등가의 문제는 아종 개체를 지시하는 총칭표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영어의 총칭표현이 하나의 아종을

들의 규범총칭 표현 중 복수명사구는 없다.

지시하는 경우는 (2d)에서와 같이 단수명사구인 ‘a lion’이 쓰이고 복수의 아종을 지시하는 경우는 (3b)의 ‘the dinosaurs’에서처럼 복수명사구가 쓰인다. 마찬가지로 (11)의 예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복수의 아종을 지시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에서도 복수명사구가 선호된다. 종 개체를 지시하는 총칭표현과 달리 아종 개체를 지시하는 총칭표현에서는 의미적 복수성이 통사적인 형태에 반영됨으로써 영어와 한국어가 명사구에 대해 동일한 선호도를 보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번역상의 비등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일반적인 개체를 지시하게 되는 특성총칭표현과 규범총칭표현에서도 영어와 한국어의 통사적 선호도는 상이한 유형을 보인다. 먼저 규범총칭의 경우 (7)과 (16)의 예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어와 한국어가 모두 단수명사구를 선호한다. 규범총칭이 그 지시대상의 범주에서 가장 이상적이거나 모범적인 하나의 개체, 즉 이상세계에 존재하는 단수의 개체를 지시하는가에 대해 이론에 따라 다른 입장이 존재할 수 있지만, 만약 이상세계의 단수 개체를 지시한다고 가정하면 영어와 한국어의 규범총칭은 의미적 복수성이 통사적인 형태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번역상의 비등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경우이다.

규범총칭표현이 통사적으로 단순한 유형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특성총칭은 영어와 한국어가 모두 다양한 명사구의 형태를 허용하고 있다. 영어에서는 (4)와 (5)의 예문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무관사 복수명사인 ‘dinosaurs’가 가장 선호되는 명사구의 형태이지만 단수인 ‘a dinosaur’와 ‘the dinosaur’도 가능한 표현이다. 쿼크 외 (1985)에 의하면 한정적 복수명사인 ‘the dinosaurs’만이 특성총칭 명사구로 쓰일 수 없다. 영어의 다양한 형태에 비해 한국어의 특성총칭은 명사구의 의미에 [+human]의 의미자질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선호되는 통사적 형태가 달라진다. (14)과 (15)의 예문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사람을 지시하는 ‘아이’는 특성총칭으로 쓰일 때 복수명사구가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형태이며 사람이 아닌 대상을 지시하는 ‘감자’는 단수명사구가 선호되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적 다양성은 결국 의미적 복수성이 통사적인 형태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번역상의 비등가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의미 범주라고 할 수 있다.

3. 총칭표현의 영한번역 전략

3.1. 종과 이종 총칭표현의 번역

의미해석 행위는 하나의 해석영역을 가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장이나 표현의 의미를 해석하기에 개별언어의 형태·통사적 특성의 차이가 의미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번역상의 비등가의 문제란 결국 해석영역 상의 의미적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형태·통사적인 차이를 보이는 경우를 일컫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비등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시적 의미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형태·통사적 차이를 관찰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번역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와 한국어의 명사구에 통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의미적 특성은 동일하지 않다. 영어는 의미적 한정성과 복수성이 모두 통사적으로 명사구에 명시될 수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의미적 복수성만이 명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또한 의미적 특성이 통사적으로 명시화 될 수 있다하더라도 반드시 문법화 되는 것은 아니므로 총칭표현의 범주에 따라 다른 유형을 보인다. 2장에서 논의된 총칭표현의 의미적 다양성을 보면 첫 번째 경우가 종 개체를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명사구이다. 영어의 총칭 표현이 전체 종을 지시할 때 의미적 복수성은 총칭 표현에 통사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아 단수와 복수 명사구가 모두 허용된다. 반면 한국어에서는 하나의 종 개체를 지시하는 의미 해석에 충실하여 단수 명사구만이 쓰인다. 이러한 비등가적 언어 현상을 영한 번역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의미적 특성이 통사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영어에서는 명사구가 전체 종을 지시하는 것인지 여부를 서술어구의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에 유의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일단 종 개체를 지시하는 총칭표현으로 해석이 되면 영어 총칭표현의 복수성과 무관하게 한국어에서는 단수명사구로 번역되어야 한다.

문법적 특성을 바탕으로 도출된 영어와 한국어간의 번역전략이 실제로 번역텍스트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지를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겠다. 도킨스(Dawkins)가 저술한 『이기적 유전자 (Selfish Genes)』는 생물학적 논의를 하는 텍스트의 특성상 종 개체를 지시하는 명사구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 그 중 하나를 살펴보면 위의 번역전략이 유효함을 알 수 있다.

- (17) a. ST: Survival machines began as passive receptacles for the genes,
... (도킨스 46)
b. TT: 생존 기계는 유전자의 수동적 피난처로 처음 생겨났다.
(홍영남 · 이시영 104)

ST (source text: 원천텍스트)인 (17a)의 서술어구인 ‘began as passive receptacles for the genes’는 하나의 종이 생겨난 것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므로 의미상 특정한 일반개체에 적용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서술어구의 특징은 주어인 명사구가 전체 종 개체를 지시하여야 하는 표현임을 쉽게 알 수 있게 해 준다. 하나의 종을 지시함에도 불구하고 ST인 영어 문장에서는 무관사 복수명사인 ‘survival machines’가 쓰였다. 영어 명사구의 복수성과 무관하게 종 총칭표현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단수명사구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TT (target text: 목표텍스트)인 (17b)에서는 이러한 번역전략이 잘 적용되어 단수명사구인 ‘생존기계’가 주어로 쓰였다. 즉 전체 종을 지시하는 것으로 문장에서 해석만 된다면 영어 명사구의 복수성과는 무관하게 한국어에서는 단수명사로 번역이 됨을 알 수 있다.

일반개체가 아닌 종 개체를 지시한다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아종을 지시하는 총칭표현은 종을 지시하는 총칭표현과 통사적인 차별성을 보인다. 영어의 종 총칭표현의 경우 의미적 지시성이 통사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데 비해 아종을 지시하는 총칭표현은 하나의 개체를 지시할 때는 단수 명사구가 쓰이고 다수의 아종을 지시할 때는 복수 명사구가 쓰인다. 한국어에서는 종에 대한 총칭표현과 마찬가지로 아종에 대한 총칭표현도 의미적 특성이 통사적으로 반영되어 지시대상에 대한 복수성이 통사적 복수성으로 드러난다. 영어와 한국어의 아종 표현에 대한 문법적 유사성은 번역에 있어서 비등가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ST에 충실한 번역을 하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어와 한국어의 아종 총칭표현에 대한 통사적 유사성은 번역텍스트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동일한 텍스트에서 발췌한 (18)와 (19)의 문장에서 아종 총칭표현은 단수와 복수 명사구로 차별화되어 쓰인다.

- (18) a. ST: A gene that makes its predecessors die is called a lethal gene.
A semi-lethal gene has some debilitating effect, such that it makes

death from other causes more probable. (도킨스 40)

- b. TT: ‘치사유전자’란 자신을 지니고 있는 개체를 죽이는 유전자다. 반치사유전자는 개체가 쇠약해지도록 하여 다른 원인에 의해서 죽을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한다. (홍영남 · 이시영 95)

(19) a. ST: The species with which we are most familiar-mammals and birds-tend to be great carers.

(도킨스 109)

- b. TT: 우리에게 가장 낯익은 동물들-포유류와 조류-은 아이 키우기 선수들이다. (홍영남 · 이시영 197)

(18)은 유전자라는 하나의 종이 치사유전자와 반치사유전자라는 두 개의 아종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아종의 차이에 대한 기술이다. 유전자 종에 속하는 하나의 아종에 대한 기술이므로 의미적으로 단수이다. 이에 반해 (19)은 동물이라는 하나의 종에 속하는 많은 아종 중 특히 포유류와 조류의 두 아종에 대한 기술이므로 의미적으로 복수성을 가진다. 이러한 의미적 차이는 문장에 통사적으로 그대로 반영되어 (18)의 ST와 TT에서는 단수명사구인 ‘a semi-lethal gene’과 ‘반치사유전자’가 각각 쓰였으며, (19)의 ST와 TT에서는 복수명사구인 ‘the species’와 ‘동물들’이 각각 쓰였다. ST와 TT에서 보이는 통사적 유사성은 아종 총칭표현의 번역에 있어서는 비등가의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준다.

종과 아종 총칭표현은 종 개체를 지시한다는 의미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통사적으로 명사화되는 면에서는 차별성을 보인다. 종이나 아종을 지시하는데 있어서 의미적 복수성이 한국어에서는 일관성 있게 지켜지고 있는 반면 영어에서는 아종 총칭표현에서만 지켜지고 있다. 따라서 종 총칭표현의 번역에서만 비등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영어 종 총칭표현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2. 특성총칭 표현의 번역

개체들의 일반적인 속성을 기술하는 특성총칭 문장은 영어와 한국어 모두에서 명사구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총칭문장 번역에서 가장 주의가 필요한 범주이다. 영어의 특성총칭 표현은 무관사 복수명사구가 가장 선호되는 형태이지만 단수명사구도 쓰일 수 있다. 통사적으로 특정한 표현으로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표현이 쓰일 수 있으므로 텍스트 상에서 총칭 의미 해석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의 특성총칭 문장도 단수와 복수명사구를 모두 허용하지만 영어에서와 달리 명사구의 의미에 따라 통사적 선택이 한정된다. 명사의 의미에 [+human]의 의미자질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통사적 복수성이 결정된다.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을 하는 특성총칭 문장의 경우 영어에서는 명사의 의미자질과 무관하게 무관사 복수명사구가 가장 선호되는 형태이며, 한국어에서도 복수명사구가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이다. 따라서 번역을 할 때 ST의 통사적 형태에 유의하여 충실하게 번역하면 된다.

(20) a. ST: Greeks were independent and engaged in verbal contention and debate in an effort to discover what people took to be the truth. (니스벳 19)

b. TT: 그리스인들은 개인을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로 보았고, 진리를 발견하는 수단으로서의 논쟁을 중시했다. (최인철 44)

(20a)의 ‘Greeks’는 사람을 지시하는 명사구로서 특성총칭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관사가 수반되지 않는 복수명사구의 형태로 쓰였다. 이에 대응되는 TT인 (20b)에서도 복수명사구인 ‘그리스인들’이 쓰였다. 니스벳(Nisbett)이 쓴 책 『생각의 지도(The Geography of Thought)』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 사람들의 사고 체계의 차이를 논하는 내용으로 주제의 특성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속성을 기술하는 특성총칭의 문장이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총칭의 문장에서는 모두 (20a)와 같이 무관사 복수명사구가 일관되게 쓰였으며, 이를 번역한 TT에서도 (20b)와 같이 복수명사구가 쓰였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유전자의 특징을 논하는 ‘이기적 유전자’에서는 주제의 특성상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속성을 기술하는 특성총칭 문장이 잘 쓰이지 않지만 드물게 나타나는 예에서는 ‘생각의 지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형태를 보이고 있다.

(21) a. ST: Chemists have tried to imitate the chemical conditions of the young earth. (도킨스 14)

b. TT: 화학자들은 초기 지구의 화학적 상태를 재현하려는 많은 시도를 했다. (홍영남 · 이시영 57)

(21a)의 ST의 무관사 복수명사구 ‘chemists’는 (21b)의 TT에서 ‘화학자들’로 번역되고 있다. 이 책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성총칭 문장들이 사람이 아닌 대상에 대한 기술이며, 이러한 문장들의 번역에서 예외 없이 단수명사구를 사용한 것을 감안하면 (21b)의 복수명사구는 번역가가 사람명사의 특징을 고려하여 정확한 번역을 기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사람명사에 대한 특성총칭 문장이 번역상의 비등가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외의 명사들은 등가표현이 아닌 명사구를 선택해야만 정확한 번역이 되는 경우들이다. 영어에서는 명사의 의미자질에 무관하게 무관사 복수명사구가 특성총칭 문장에서 선호되지만 한국어에서는 사람이 아닌 명사의 경우 단수명사구가 자연스럽게 쓰인다.

(22) a. ST: Computers do not yet play chess as well as human grand masters, but they have reached the standard of a good amateur.

(도킨스 51)

b. TT: 컴퓨터는 아직 명인만큼 체스를 잘 두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훌륭한 아마추어 수준정도는 된다. (홍영남·이시영 112)

(22a)는 컴퓨터라는 사물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을 하는 특성총칭 문장으로서 기술의 대상이 되는 컴퓨터는 무관사 복수명사구인 ‘computers’가 쓰였다. 이에 대응되는 TT인 (22b)에서는 복수명사 대신 단수명사구인 ‘컴퓨터’가 쓰였다. 이를 복수명사구인 ‘컴퓨터들’로 번역을 하게 되면 문장이 상당히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드물게 해석이 가능할지라도 그 문장의 의미는 컴퓨터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의 의미를 가지는 특성총칭 문장이라기보다는 특정한 몇몇 컴퓨터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의 의미로 더 해석이 된다. 사람명사와 차별화되는 번역전략은 사물명사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에 대한 표현에도 적용된다.

(23) a. ST: Animals became active go-getting gene vehicles: gene machines.

(도킨스 47)

b. TT: 동물은 민첩하고 활발한 유전자의 운반자, 즉 유전자 기계가 되었다. (홍영남·이시영 106)

(23a)의 동물에 대한 특성총칭 문장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명사구의 형태는 무관사 복수명사구인 ‘animals’이지만 이에 대한 번역은 (23b)에서처럼 단수명사구인 ‘동물’이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사람명사와 차별화되는 특성총칭 문장의 번역전략은 실체가 있는 사물이나 동물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는 명사에까지 확대되어 적용된다.

- (24) a. ST: New wealth systems don't come often, and they don't travel alone. (토플러 · 토플러 5)
 b. TT: 새로운 부 창출 시스템은 자주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단독으로 오지도 않는다. (김중웅 25)

(24a)의 ‘system’은 조직을 지시하는 추상명사이지만 어휘의 특성상 가산명사이다. 가산명사이기만 하면 영어의 특성총칭 문장에서는 (23a)에서처럼 무관사 복수명사구가 선호되는 형태이다. 이에 대응되는 TT에서 ST의 통사적 특징에 충실하게 번역하여 복수명사구인 ‘새로운 부 창출 시스템들’이라고 쓴다면 번역투의 느낌이 강하게 들거나 적어도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인 특성총칭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해석되기는 어렵게 느껴진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번역가도 (24b)에서처럼 단수명사구를 사용하였다. 어휘 의미상 수를 세는 것이 더욱 부자연스러운 추상명사 ‘revolution’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의 전략이 활용되고 있다.

- (25) a. ST: Revolutions also smash boundaries. (토플러 · 토플러 8)
 b. TT: 혁명은 모든 경계를 여지없이 무너뜨린다. (김중웅 28)

혁명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을 하는 특성총칭 문장 (25a)에서 무관사 복수명사구인 ‘revolutions’가 쓰였다. 이는 실제로 그 수를 셀 수 있느냐는 지시 대상의 특성보다는 어휘적 특성으로 정해져 있는 가산성에 따라서 명사구의 통사적 형태가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가 어휘적 특성에 따라 특성총칭 표현의 통사적 형태가 결정되는 것에 비해 한국어에서는 지시대상의 의미에 따라 그 형태가 결정된다. ‘revolutions’는 지시대상이 사람이 아닌 경우이므로 ST의 통사적 형태와 무관하게 (25b)의 문장에서처럼 단수명사구인 ‘혁명’이 자연스럽게

쓰인다.

3.3. 지시대상에 따른 특성총칭 표현의 번역

영어의 특성총칭 문장이 가산성과 관련된 명사의 어휘적 특성에 따라 선호되는 통사적 형태가 결정되는 것에 비해 한국어의 특성총칭 문장에서는 명사의 어휘적 의미에 [+human]의 의미자질이 포함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선호되는 형태가 달라진다. 이러한 언어의 문법적 차이는 3.2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영한 번역의 경우 사람 명사는 ST에 충실한 번역을 하고 그 이외의 명사는 ST의 통사적 형태와 관계없이 단수명사구로 번역을 하는 전략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번역된 텍스트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러한 번역전략을 어휘 의미에 따라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텍스트 내에서 실제 지시되는 대상이 사람으로 이해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적절히 적용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는 생물학적 논의의 특성상 지시대상이 사람일 지라도 이를 일반적인 인간성을 지닌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유기체로 기술하는 내용들이 포함된다. 이 경우 명사의 어휘적 의미는 [+human]의 의미자질을 포함할지라도 지시대상은 동물과 유사하게 이해되며, 텍스트에서의 지시대상에 대한 이해에 따라 번역전략은 달리 적용된다.

(26) a. ST: Individuals are not stable things, they are fleeting. Chromosomes too are shuffled into oblivion, like hands of cards soon after they are dealt. (도킨스 35)

b. TT: 개체는 안정적이지 않다. 정처없이 떠도는 존재다. 염색체 또한 트럼프의 패처럼 섞이고 사라진다. (홍영남·이시영 87)

(26a)의 ‘individuals’는 어휘적 의미로만 보면 사람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쉽지만 텍스트 상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 사람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학적 개체들을 지시하고 있다. ‘individual’의 어휘적 의미에도 [+human]이 포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텍스트의 지시대상에도 사람이 포함되지만 이를 일반적인 사람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유기체로서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 경우 적절한 특성총칭 명사구의 번역은 (26b)에서와 같이 단수명사구

를 쓰는 것이다. 복수명사구인 ‘개체들’로 번역을 하였을 때 특성총칭 문장으로 이해되기보다는 복수의 특정한 개체들을 지시하는 것으로 쉽게 해석된다.

텍스트에서의 지시대상의 의미에 따른 번역전략은 수사적인 목적으로 문장 내에 사람명사가 쓰일지라도 변함이 없다.

- (27) a. ST: To extend the actuarial analogy, individuals can be thought of as life-insurance underwriters. (도킨스 95)
 b. TT: 보험회계사에 대한 비유를 확장하면, 개체는 생명 보험업자라고 볼 수 있다. (홍영남·이시영 176)

(27a)의 ‘individuals’는 (26a)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포함한 생물학적인 유기체를 지시하는 의미로 쓰였다. 텍스트 해석상 명사구 자체는 유사한 지시적 의미를 가지지만 문장 내에 수사적인 목적으로 사람을 지시하는 ‘life-insurance underwriters’가 쓰임으로써 ‘individuals’가 한층 더 사람명사로 이해되는 효과가 있다. 문장에서 사람명사의 사용으로 인한 수사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표텍스트인 (27b)에서는 단수명사구인 ‘개체’가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러한 결과는 특성총칭 문장의 영한 번역시에 명사의 어휘적 의미 범주보다는 텍스트 상에서의 지시대상의 범주에 따라 번역전략을 적용해야 함을 보여준다.

지시대상의 범주가 생물학적 유기체보다도 더 좁아져서 사람을 포함한 동물로 제한될 때도 마찬가지로의 번역전략이 적용된다.

- (28) a. ST: Males, then seem to be pretty worthless fellows, (도킨스 143)
 b. TT: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수컷은 쓸데없는 작자들 같다. (홍영남·이시영 250)

(28a)의 ‘males’는 이어지는 ‘fellows’ 등의 표현의 효과로 인해 사람으로 이해되기 쉽지만 텍스트의 내용은 반드시 사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 (28b)의 번역처럼 ‘남성’보다는 동물을 지시하는 ‘수컷’이 더 적절하며, 통사적 형태는 동물명사에 적용되는 단수명사구가 적절하게 여겨진다. 이러한 번역전략은 텍스트의 의미상 동물을 포함하지만 사람에게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29) a. ST: ... but strictly it should be worked out in terms of parental investment, meaning all the food and other resources that a parent has to offer, measured in the way discussed in the previous chapter. Parents should invest equally in sons and daughters. (도킨스 145)

b. TT: ...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이 이야기를 부모의 투자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 부모의 투자에는 먹이와 그 밖에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자원이 포함되는데, 그 측정법은 앞에서 논한 바 있다. 부모는 아들과 딸에게 같은 양을 투자할 것이다. (홍영남·이시영 253)

(29a)에 나타나는 ‘parents’, ‘sons’, ‘daughters’ 등은 어휘 의미상 우선적으로 사람을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실제 텍스트 상에서도 사람을 포함하여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의 ‘parents’의 지시대상은 사람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동물들도 포함하고 있다. 지시대상이 사람만으로 국한되지 않는 (29a)와 같은 특성총칭 문장의 번역도 (29b)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수명사구가 적절하게 여겨진다. 결국 무관사 복수명사구로 이루어진 영어의 특성총칭 문장을 한국어의 복수명사구로 번역하는 전략은 사람명사라는 어휘의 의미 범주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대상의 범주가 사람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이 때 사람이 포함되느냐가 아니라 사람만으로 지시대상이 구성되느냐에 따라 적용이 결정된다.

4. 결론

하나의 해석영역을 가정하고 의미를 해석하기에 언어 간의 문법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문장의 의미는 일정한 유형으로 해석해 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의 관점에서 보면 번역 상의 비등가 문제란 해석영역 상에서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지만 형태·통사적으로 이질적인 유형을 보이는 것으로 귀결된다. 더불어

비등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동일한 의미 해석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문법적 특성을 보이는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번역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총칭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들을 의미 범주에 따라 구분하고, 각 범주에 대한 영어와 한국어의 문법적인 특성의 차이를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영한 번역시에 유의하여야 할 총칭 문장의 의미범주를 살펴보았다. 아종총칭 문장과 규범총칭 문장은 문장의 의미적 특성이 영어와 한국어의 통사적 구조에 각각 잘 반영이 되는 경우이기에 통사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보임으로써 영한 번역시에 비등가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다. 그러나 종총칭 문장의 경우 영어에서는 의미적 특성이 통사적 구조에 반영되지 않고 한국어에서는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동일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등가표현이 적절한 번역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번역시에 유의가 필요한 의미 범주가 된다.

총칭문장의 의미 범주 중에서 특성총칭 문장은 영어와 한국어 모두 특이성을 보이는 의미범주이기에 번역시에 가장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영역이다. 영어의 경우 무관사 복수명사구와 한정적·비한정적 단수명사구가 모두 특성총칭 문장에 쓰일 수 있으므로 특성총칭 문장으로 해석을 유도할 통사적인 특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서술어구의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어의 특성총칭 문장은 명사의 의미 범주에 따라 통사적 형태가 달라지므로 번역시 명사의 의미자질에 주의하여 번역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Burton-Roberts, N. (1977) 'Generic Sentences and Analyticity', *Studies in Language* 1: 155-96.
- Carlson, G. (1977) 'Reference to Kinds in English', Ph. D. Thesis,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Carlson, G. (1989) 'The Semantic Contribution of English Generic Sentences', in G Chierchia et al., (eds.), *Properties, Types and Meaning*, Kluwer: Dordrecht, 167-91.

- Chierchia, G. (1998a) 'Plurality of Mass Nouns and the Notion of Semantic Parameter', in S Rothstein (ed), *Events and Grammar*. Dordrecht: Kluwer, 53-103.
- _____. (1998b) 'Reference to Kinds across Languages', *Natural Language and Semantics* 6: 339-405.
- Cohen, A. (2001) 'On the Generic Use of Indefinite Singulars', *Journal of Semantics* 18: 183-209.
- Corbett, G. (2000) *Numb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yal, V. (2004) 'Number Marking and (In)definiteness in Kind Terms', *Linguistics and Philosophy* 27: 393-450.
- Diesing, M (1992) *Indefiniteness*. Cambridge: MIT Press.
- Gerstner, C. and M. Krifka (1993) 'Genericity', in J. Jacobs et al. (eds.), *Handbuch der Syntax*. Berlin: Gruyter, 966-78.
- Kratzer, A. (1995) 'Stage-level and Individual-level Predicates', in G. Carlson and J. Pelletier (eds.), *The Generic Book*.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25-75.
- Krifka, M. et al. (1995) 'Genericity: An Introduction', in G. Carlson and F. Pelletier (eds.), *The Generic Book*,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124.
- Kwak, E. (2009) 'An Analysis of Korean Generic Interpretations',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34: 221-42.
- Lawer, J.(1973) 'Studies in English Generics', *University of Michigan Papers in Linguistics Vol 1*.
- Nemoto, N. (2005) 'On Mass Denotations of Bare Nouns in Japanese and Korean', *Linguistics* 43: 383-413.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Wilkinson, K. (1991) *Studies in the Semantics of Generic NP's*, Ph. D. Thesis.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분석텍스트>

1	ST	Dawkins, Richard (2006) <i>The Selfish Gene</i> , 30th Anniversary Edition, New York: Oxford Univ. Press
	TT	홍영남 · 이시영 역 (2010) 『이기적 유전자』, 서울: 을유문화사.
2	ST	Nisbett, Richard (2003) <i>The Geography of Thought</i> , New York: Free Press.
	TT	최인철 역 (2004) 『생각의 지도』, 파주: 김영사.
3	ST	Toffler, Alvin & Heidi Toffler (2006) <i>Revolutionary Wealth</i> , New York: Doubleday.
	TT	김중웅 역 (2006) 『부의 미래』, 파주: 청림출판.

[Abstract]

English-Korean Translation Methods of Generic Expressions Based on Interpretations

Kwak, Eun-Joo
(Sejong University)

Sentences are interpreted in a single domain even if they belong to different languages. Hence, the translational problem of non-equivalence may be rephrased in the way that sentences of different languages have different morpho-syntactic forms in spite of their equal references. In this study, we aim to approach the non-equivalence problem related with generic sentences.

Generic sentences are divided into several categories depending on their denotational properties: kind, subkind, characterizing generic, and normative generic sentences. In part of these categories, English and Korean show different syntactic properties, raising a non-equivalence problem: semantic properties related with plurality may or may not be reflected in English and Korean grammars. To cope with this problem, we overview the syntactic properties of English and Korean generic sentences and suggest translational methods based on the comparative results.

▶ Key Words: kind, subkind, characterizing generic, normative generic, translation strategy

곽은주

세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ejkwak@sejong.ac.kr

관심분야: 번역학, 의미론, 화용론

논문투고일: 2014년 7월 23일

심사완료일: 2014년 8월 29일

게재확정일: 2014년 9월 15일